



새상품

내몸세우

무순등 채소재배 적합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콩나물 배양 무순 등 각종 채소를 기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제품. 어린이들에게는 '신노박' 정신을 함양하고 어른들에게는 무공해 식생활로 상인병을 예방케 한다. 하루 한두번 맨 위 물지게 그곳에 물을 채워두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준다. 맥스통상 제품, 값은 3만8천원. (02)578-5571

자상 알뜰시장

아동요류·탈수기·시계 접수

본사와 종단협소비자위, 맑고향기롭게 모음이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아나바다운동)' 과정을 통해 무절제한 소비를 지양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취지로 자상알뜰시장을 연 이래 286PC, 보행기, 3601 냉장고 2채 주인을 찾았습니다. 또한 7~8세용(210~215mm) 아이스크레이트, 성인·아동용 의류, 탈수기, 탁상시계, 손목시계, 책 등 다양한 물품이 새롭게 접수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또는 내용을 물문자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접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종단협소비자보호위 (02)3452-7485·맑고향기롭게모임 (02)741-4696

우리가 락 춤에 '모두 한마음'

"한많은 이세상 아속한 님아, 정을 주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때 이른 초여름 날씨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이 등글거릴 적시는 일요일 낮. 동국대 캠퍼스를 울리는 동대부중 풍물패의 흥겨운 사물(징, 풍과리, 장구, 북) 장단에 중창단이 '한오백년' 노래가락을 붙이자 강당을 가득메운 1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환호하기 시작했다. 양악과 국악의 만남이 익숙치 않은 탓인지 때때로 배꼽을 쥐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여학생들의 친절한 모습이 또다른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 동안 풍국대 중창단은 열기를 더해 갔다.

5월25일, 을해로 10회째 열린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의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에는 놀이·공연문화에 대한



▷20여개 팀이 참여해 경연을 벌인 제10회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에서는 영등포여중 류나진임이 '삼짇날'로 문체부장관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청교련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 현장

선체조·사물놀이·창작 고전무용등 '갈채' 방황하는 신세대에 건전 오락문화 제공

갈증으로 갈 곳없이 시내 곳곳을 배회하기 일췌한 청소년들이 주연이 돼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로 꾸며졌다. 강당을 찢렁찢렁 울린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어깨춤과 박수갈채로 한바탕 시골박자했던 분위기도 잠깐, 청교련 대진지부의 '선체조' 공연이 이어지자 행사장은 잠시간에 조용해지면서 불자청소년들은 성숙된 공연문화를 연출했다. 정경은(동방여고)양 외 10여명의 출연진은 주말에 한

번, 3시간씩 합동훈련을 한 덕분에 인자 누구 한사람 실수하는 사람 없이 김영동의 '귀소' 곡에 맞춰 손바닥을 비비고,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등 불교전통 체조를 차분하게 선보였다. 공부하는 틈틈이 선체조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머리를 식히기도 했다. 출연자들의 얼굴빛은 모두들 평온하다못해 환한 세상속에 빛을 발하는 젊은이들은 절제미를 보여주었다. 그 여세를 몰아 영등포여중 류

나진(대림포교원)양의 창작고전무용은 불자청소년들을 잔잔한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빨간색과 검정색이 극렬한 대비를 이룬 무대복과 국선도와 전통살품이 춤을 점프시킨 류양의 창작무는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의 격을 한층 높였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해명보육원 원생들의 '부채춤'과 자비예술단의 '한국예술무용' 작을 체구에 알맞은 몸짓으로 둥근 원을 만들고, 파도를 만들

때면 관람객들의 박수와 함성소리로 마치 강당이 떠나갈 듯 들쭉였다. 해명보육원 장성현양은 "매일 매일의 연습으로 합동훈련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피부였는데 언니 오빠들이 너무 이뻐해주니깐 좋아요"라고 말한 뒤 잠시 머뭇거리더니 "높은 상 주세요"라고 소리쳐 행사장을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경연대회에서의 경쟁마저 순수하게 웃고 즐길 줄 아는 불자 남녀학생들은 어느새 친구로 또는 오빠·동생 누나·동생이 돼 도반의 인연을 맺어 합정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도필선 기자

눈을 즐겁게 하는 빨간 열정적인 색, 매콤하고 향긋하면서도 자극적이고 우아한 향취, 혀에 바람을 불어넣게 하는 강렬한 매운 맛, 코 그리고 혀를 사로잡는 고추의 기호식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전후라고 한다. 고추의 붉은 색은 캡사틴, 캡슐루빈이라는 기름에 잘 녹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이다. 이 색소는 비타민A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고추 중에는 알파 및 베타카로틴 같이 효력이 있는 것도 제법 많은 양이 들어있다.

고추

고추의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은 고품질의 비타민C와 더불어 위에 활성산소나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는 항산화작용을 발휘한다. 비타민C가 처음으로 순수하게 분리된 식물체도 바로 헝거리산 고추인 파푸리카(피망)였다. 한편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성분이 있다. 이것은 산화작용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그대로 증발해 공중에 퍼진 그 자극으로 재채기나 눈물을 유발하고 피부를 따갑게 한다. 고추가루 근처에서 흔히 경험한다. 캡사이신은 신경을 자극해서 처음에는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지만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감각을 둔화시켜 진통을 지속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동시에 뇌 회화시키는 생리작용도 가

붉은색소 비타민C 많아 매운맛 감각둔화 작용 진통·찌질약으로도 활용

지고 있는 신경독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진통작용도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탁월한 동통소스의 찜질약으로 최근 활용되고 있으며, 감각 신경퇴화작용은 신경과학자들이 연구자료로 주목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처음으로 고추를 접한 외국인이 찜질하는 것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미각반응의 정직한 표현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찜질할수록 후의 결집인 미각은 캡사이신의 무감각화 효력 덕분에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작용 때문에 고추섭취가 계속 늘고 있는 한국사람의 감각은 둔화되고 있음을 능히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고추는 건강상 유익한 성분과 그렇지 못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고추의 섭취량이 가장 많은 한국인에 있어서 두 열풍을 가진 고추의 파다한 섭취가 과연 우리의 건강, 정서, 행위,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다각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와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화학)



만화

백야경

이향원

외아들을 죽이려는 여인
옛날 어떤 부인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 부인은 더 많은 아들을 낳고 싶어 다른 부인에게 물었다.
"나는 아들을 또 갖고 싶은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드님 보신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또..."
"부인 내가 그 소원을 들어 드리리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그 방법이 뭔지 가르쳐만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제사하라."
"하늘에 제사하라...!"
"제사에는 어떤 재물을 써야 하나?"
"그 아들을 죽여라."
"어!"
"그리고 그 피로 하늘에 제사하면 반드시 많은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배지도 않은 아이이니 얻지 못할 수도 있겠는."
"그것을 위해 현재 아들을 죽이려는 우를 범하려 하더니..."
"아직 나지 않은 즐거움을 위하여 스스로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고."
"강가지로 몸을 헤쳐면서 천상에 나게 될것이라 믿는지!"
이들의 어리석음은 주어진 것에 만족을 찾지 못하고 낳지도 않은 자식을 위해 낳은 자식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추천 옥산가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파팍파팍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꿈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뒷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 장타력, 집중력, 골조머리가 잡혀 잡니다. (조금의 차이도 1마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에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발진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옥산가옥이 약이름을 아십니까? 아니면 추후(추)에 전유를 배웠을 때 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정성과 열이 담긴 남원 木器 공예

- 원목 통제기 358,000원(37파·상기 사진세트)
- 100년산 물푸레나무 288,000원

고찰 승려들의 식기, 바루 제작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로 다듬어진 목기입니다. 지리산 나무로 그 특유한 향기와 정통의 재목으로 쫄무리고 격조높게 만들어진 목기입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물푸레나무를 재료로 모양과 색상이 좋고 내구성이 강하며 냄새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목기입니다.

남원목기공예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46-9
전화 : (062)511-9641
대표 임동주 합장

관음출판사

관음역사시리즈 8

古典 풍수학 실성부

수년간의 연구과정에서 탄생한 풍수학의 정통. 申 卍 지음 값 18,000원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격(人格)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사주학 핵심비결

승필섭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易書. 신권판/값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산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A5신/양장본 /36,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을동 75-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